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차)			
개최일시	2021.1.12(화) 16:00~19:00	회의장소	대학원별관 윤세영홀
참 석 자 (13명)	강동범(교무처장), 김영석(관리처장), 노아정(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 박수정(사범대학 공동대표), 배소현(예산팀장), 백옥경(학생처장), 유세경(기획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이수린(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사회과학대학 공동대표), 이희주(대학원 학생회장), 정도연(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경영대학 공동대표), 조은진(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홍기석(총무처장)		
불 참 자 (0명)			
안 건	1.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2. 예산 관련 학부 학생위원 요구안에 대한 논의		
내 용	■ 개회 - 위원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함)를 개최하다. ■ 회의내용 1. 회의 녹음 재개 요건의 변경 - 위원장이 안건 심의에 앞서 지난 회의 때 합의된 녹음 관련 사안에 대해 예산팀장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지난 회의 때 합의된 회의참석자 전원의 녹음 동의 필수, 녹음의 목적(회의록 작성) 달성 즉시 녹음자료 폐기, 비밀심의 보장을 위해 위원장이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녹음 중지 및 재개, 녹음자료 보안 관리를 위한 녹음자료의 생성, 보관 및 폐기 주체는 예산팀으로 지정,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학생위원측 서기록 작성자에 한해 지정된 장소에서 예산팀 담당자의 입회하에 녹음자료 열람 가능 등의 사안을 다시 설명하다. 다만, 녹음 중지 및 재개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자문 결과 녹음 재개 시 전원 동의가 바람직하다는 해석이 있었다고 발언하며, 녹음 재개 요건에 대한 변경을 제안하다. - 참석위원 전원이 녹음 재개 요건 변경에 동의하고 녹음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의 녹음을 개시하다.		

• 합의사항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녹음 재개 요건의 변경

- 위원장이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녹음 중지한 후, 녹음을 재개할 때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회의 안건 순서에 대한 논의

- 위원장이 회의 안건에 대해 기획처장이 발언할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첫 번째 안건인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안)과 관련하여 학부 입학금 인하, 학부 및 대학원 정규등록금 책정, 학부 및 대학원 계절학기 및 기타 등록금 책정 순으로 심의될 예정임을 말하다.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학생들이 요청한 예산 관련 요구안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설명하다.

-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가 학생 측에서 학생 요구안 안건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등심위에서는 학생 요구안보다는 등록금 상정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등록금 책정에 대한 안건을 1번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하다. 그러나 학생 요구안 반영 없이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이 앞서 이미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한 차례 회의로 등록금 책정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다. 덧붙여 등심위 원래 목적이 등록금 책정에 있는 만큼 학부 학생위원의 등록금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등록금 책정 기한인 14일 목요일 12시 정도에 추가 개최해서 등록금 책정 의결을 진행하기를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 요구안 8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상당 부분 답변과 논의가 있었음을 말하며, 금일 회의에서는 202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하였다고 설명하다. 이어 안건에 대한 논의 이전에 회의 횟수를 미리 정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충분히 논의한 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말하다. 덧붙여 학교가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동결하는 이유와 학부 입학금 인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니, 안건 심의를 위해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여 주기를 당부하다.

-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가 학생 요구안이 등록금 책정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며 현재 의결이 너무 이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다. 또한 등록금 책정 이전에 등록금 인하와 반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하다. 학생 위원들은 학생 요구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기를 원하고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책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를 절충하여 금번 회의에서는 학생

	요구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차기 회의에서는 등록금 책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기를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의 가장 주된 기능은 등록금 책정에 관한 것임을 말하며, 예산 관련한 학생 요구안은 앞서 1차 회의에서 학교 예산안 의결 시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을 설명하다. 지난 회의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였고, 금번 회의에서는 의결된 예산안 내에서 학생 요구안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세부사항을 논의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아울러, 앞서 의결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한 것이므로 등록금 책정(안)을 먼저 심의할 것을 재차 요청하다. 또한 외부위원의 경우 일정상 등록금 책정 의결 이후 학생 요구안 관련 논의 진행 시에는 회의 동참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학생 측은 등록금 관련하여 듣지도 않고 의결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며 학생처에서 사전자료 열람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답변 받았는데 사전자료 열람도 못했다고 말하다. - 예산팀장이 예산안의 경우 학생위원들이 회의장에서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 의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사전열람 시간을 제공하였으니, 등록금 책정(안)의 경우에는 보안상의 이유뿐 아니라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인해 심의내용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열람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오늘 준비해 온 자료를 학생측에서 꼼꼼히 미리 봐야 의결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 사전자료 열람을 못 했기 때문에 급하게 의결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전년도에도 등록금 책정에 대한 자료는 사전열람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며 예산안 심의자료 사전열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이번 2차 회의를 위해 자료 사전열람을 요청한 것인지 학생위원 측에 질의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추가적으로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도 진행하지 않았던 자료 사전열람을 이유로 학생위원 측이 회의 추가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자료 사전열람을 하지 못해 졸속한 결정이 이
--	--

	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금번 회의에서는 논의만 충분히 진행하고 의결은 3차 회의에서 할 것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등록금 책정(안) 자료는 사전열람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책정(안)은 보안상의 이유 뿐 아니라 예산안 심의 자료에 비해 자료가 복잡하지 않고 교육부 정책에 따라 입학금은 인하, 수업료는 전년도와 다름없이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전열람을 진행할 사항이 아님을 설명하다. -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가 2020년까지 제공되었던 교외 Adobe 무료 사용에 대해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Adobe 프로그램은 학교의 지원을 통해 교내에서 무료 사용이 가능했고, 교외의 경우는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학과로부터 신청을 받아 1인당 사용계정을 구입하여 학생들이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답하다. 다만, 2020년의 경우에는 Adobe사의 자체 서비스 정책에 따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사용권한이 개방된 것이며, 서비스 이용기간은 미국 학기 기준으로 적용되어 상반기에는 5월까지,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서비스가 제공되었던 것임을 설명하다. Adobe사의 무료 제공이 종료된 12월말 이후에는 기존 방침대로 신청 학과 재학생의 교외 이용이 가능한 상태임을 덧붙인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그 이전에도 외부 사용이 가능했던 학과는 Adobe에서 지원한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Adobe 프로그램은 학과에서 신청을 받아 교외 무료사용이 가능하도록 학교에서 지원한 것이며, 작년에만 Adobe사의 정책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체 학생의 교외 무료사용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재차 설명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 책정 안건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 요구안 중 등록금 인하와 입학금 폐지에 대한 요구안은 등록금 책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등심위 회의록 작성 일정을 먼저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이후 10일 이내로 공개하여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
--	--

	- 위원장이 회의록 작성 일정 준수를 당부하며,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다. - 학생위원이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등심위가 등록금 책정(안) 의결 시 학생위원 측이 반대해도 의결이 되는 불공정한 구조임을 지적하고, 학생 요구안을 먼저 논의하는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인하 및 입학금 폐지 관련 학생 요구안은 등록금 책정 심의 시 함께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하다. 아울러,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2020학년도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다. 덧붙여, 고시실 지원 등 기타 요구사항은 등록금 책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예산 배정 및 집행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사항이니 등록금 책정(안) 심의 후 함께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위원들의 요구 사항은 충분히 듣고 논의할 계획이니 회의 순서는 학교의 제안대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학교의 제안대로 진행할 시 등록금 책정에 학생 측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학생 요구안 먼저 논의하고 의결 진행할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 요구안에 있는 장학금 확대, 학생자치 지원금 확대 등이 등록금 책정 자체에 대한 사항이기 보다는 예산 배정에 대한 사항이라고 재차 설명하다. - 학생위원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상하는 대신 적립금을 사용해서 학생 요구안을 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적립금 사용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으며 등록금 책정과 무관함을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 측의 요구안은 등록금 책정이 아닌 예산 운영의 문제이므로 등록금 책정 후 학생 요구안과 관련하여 예산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논의하자고 제안하다. - 학생위원이 요구안에 대한 추가 회의 개최에 대해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금일 회의에서 학생 요구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것을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금일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부분은 4월 이후
--	---

등심위 구조 관련 회의 진행 시 추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회의 순서대로 등록금 책정(안)을 우선 심의하고, 이후 학생 요구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재차 제안하다.

-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가 내년 1차 등심위에서 학생 요구안을 예산안 의결 이전에 넣어줄 수 있는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내년 등심위에서는 신입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내년 회의에 대하여 현시점에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 책정 시 요구안 논의를 함께하면 논의 지점도 많아지고, 결정과정도 길어지므로 등록금 책정 관련 의결만 3차 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어떻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금일 2차 회의일정은 각 위원의 일정을 어렵게 조율하여 결정한 것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추가 회의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음을 설명하다. 아울러 학생 요구안은 예산의 배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임을 재차 설명하며 우선 등록금 책정(안) 심의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학생 측은 등록금 인하를, 학교 측은 동결을 요구하기에 여기서부터 벌써 쟁점이 있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과 학교의 의견 차이에 대한 부분은 안건을 상정한 후 자세히 논의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현재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되지 못한 상태로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속히 안건 심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아울러 학생 요구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할 것임을 재차 설명하며 회의 진행을 위해 학생 위원의 협조를 구하다.

- 학생위원이 지난 1차 회의 시, 학생 요구안과 관련하여서는 2차 회의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여 예산안 의결부터 진행하였던 것인데, 금일 2차 회의에서도 학생 요구안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합당한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위원의 오해를 정정하며 학생 요구안은 금일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임을 확인하다. 또한, 이미 지난 1차 회의에서도 학생 요구안에 대하여 상당 부분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매년 비슷한 내용의 요구안을 제출하

고, 현재 요구안 먼저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은 학생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학생 참여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 편성을 포함한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편향되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임을 설명하다. 고시반 기숙사 지원 확대 요구를 예로 들며 학생 간에도 입장에 따라 의견이 상충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이며, 학생 요구안에 대한 논의는 등심위의 기본 기능이 아님을 설명하다. 학생 요구안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교 간 정기협의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부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요구안을 등심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는 의미임을 설명하며, 등록금 책정(안) 심의를 위해 학생위원의 협조를 당부하다.

- 위원장이 학생 요구안과 관련하여 학교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모든 구성원의 입장을 살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설명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 요구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 요구안과 관련한 의견은 등심위 뿐 아니라 각 부서 및 학생처의 예산 신청 절차를 통해서도 접하고 있고 예산 반영 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등록금 책정(안)을 우선 심의하고 요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하다.

- 이에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등록금 책정(안)부터 순서대로 안건 심의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표하다.

3.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

- 위원장이 예산팀장에게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발제하다. 우선, 정규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학부 입학금은 교육부의 학부 입학금 단계적 감축 계획에 따라 인하하여 책정하고, 학부 수업료와 각 대학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여 책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아울러, 2021학년도에 신설되는 경영전문대학원의 야간 박사과정 등록금과 Executive MBA의 주말과정 등록금 책정(안)을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마지막으로 학부와 대학원의 계절학기 및 기타 등록금 또한 모두 동결할 예정임을 밝히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입학금 즉각 폐지에 대하여 매년 요구하고 있음에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부 입학금은 교육부에 제출한 감축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입학금 인하로 인해 신입생 등록금은 매해 감축되고 있는 것에 반해, 신입생의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비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덧붙이다. - 예산팀장이 교육부의 입학금 감축 계획에 대해 추가 설명하며, 2023년부터는 입학금이 폐지될 예정임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2019년 회의록에서 입학금이 입학 관련 경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로도 사용된 현황을 확인하였는데, 입학금 상세 사용 내역이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입학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지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며, 입학금도 등록금 수입의 일종이라고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입학금은 등록금 수입의 일종이므로 등록금 수입에 포함되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멘토링 사업 등에 사용됨을 설명하다. - 학생위원이 입학금은 등록금의 일종이지만 입학 관련 경비 등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입학금과 입시 전형료 수입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입학금은 등록금과 마찬가지로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됨을 설명하다. - 학생위원이 입학금은 등록금의 일부인지 다시 확인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2020년의 경우 대학원은 입학금이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 대상 행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금년도 대학원 입학금 인하가 가능한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대학원 입학금은 연구 및 학습공간 지원, 인적·물적 지원 등 전공별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다. 특히, 신입생 성적 장학금을 타대학 출신 신입생에게도 확대하는 등 신입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음을 덧붙이다. - 학생처장이 연대 및 고대 등 타대학과 비교해 보아도 본교의 대학원 학생 수 대비 교내 장학금의 규모가 큰 편임을 설명하다.
--	---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이번 2021학년도 등록금 동결과 관련하여 작년 및 올해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 수업권 침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등록금을 인하할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대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적극 투자한 결과 지난 학기 강의평가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였음을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2020학년도 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직전연도에 비해 평가점수가 10% 이상 상승하였음을 설명하며, 학생들도 학교의 노력과 진정성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하다. - 위원장이 온라인 강좌 지원을 위해 교수자 셀프 스튜디오, ECC 첨단 강의실 구축 등 첨단 강의 시설에 투자할 계획임을 덧붙인다. 아울러 10년 이상 등록금이 동결되는 동안 물가와 각종 비용은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악화되고 있음에도 강의 인프라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총무처장이 경비·미화 용역비, 외주업체 계약 관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정비용도 전체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덧붙인다. - 관리처장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더라도 전기, 냉난방, 보수 등 학교 시설물 유지를 위한 고정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나, 학교의 여러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2021학년도 1학기도 혼합수업으로 결정되었는데, 학생들이 시설이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전년과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한다면 회의감으로 인해 등록률이 감소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다. - 기획처장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업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비단 본교의 사정만은 아니며, 타대학과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설명하다. 온라인 및 혼합 수업 진행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음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다. - 학생위원이 11월에 실시한 재학생만족도 조사는 평가 대상기간이 1년인지 2학기에 한정된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2020학년도 1년을 대상으로 함을 설명하다.
--	---

	- 학생위원이 재학생만족도 조사 결과가 1학기 등록금 반환으로 인해 평가가 좋아진 것은 아닌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등록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교 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정정하다. 또한 강의평가 점수가 상승한 것을 볼 때 재학생만족도 조사는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고 답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은 작년에 특별장학금 지급 제외 대상이었으며, 이에 대해 이화에 바란다는 통해 요구하였으나 대학원생은 특별장학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하다. 이에 대한 부분 및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학원 등록금을 처음에 책정할 때부터 인하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 지원을 축소하지 않고 대학원생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장학금을 확대하였다고 말하다.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대학원생 자녀의 교내 어린이집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덧붙인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학과를 통해 내려오는 공지도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등록금을 내는 만큼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학교에서 대학원생에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했지만 미흡한 홍보로 인해 개인적으로 전화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아닌 이상 알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으며 연구차원의 지원 외에도 학생들의 실기실 이용의 어려움이나 다른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여러 차질이 있을 것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음을 말하다. 이에 대해 연구 지원을 제외한 생활적 측면의 지원 혹은 등록금 인하와 같은 등록금 책정 시부터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대학원생은 50명 미만 수업이 대부분이므로 대면수업의 비중이 높으며, 이공계열의 경우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 활용도는 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설명하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에 학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인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처음 온라인 수업을 시행할 때는 서버나 사이버 강의실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들었음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된 이번 학기에는 어디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인지 추가 질의하다.
--	--

- 위원장이 사이버캠퍼스 서버 확충, 교수자의 강의 셀프 제작 시스템 구축, ECC 첨단 강의실 구축 등을 예로 들며, 온라인 강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을 설명하다.

- 학생위원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겪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계획 없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교의 2020학년도 및 2021학년도 예산을 보면 재정적자 상황임을 설명하며, 현재 특별장학금 추가 지급계획은 없다고 답변하다. 지난 1학기의 경우 코로나 상황 초기의 무방비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였던 것임을 설명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이 없다면 추가 3학점 수강이라도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관련 학칙 개정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 교무처에서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1차 등심위에서는 휴학생 증기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줄었다고 하였는데, 앞서 휴학생이 많이 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2020학년도 1학기에 비해 2020학년도 2학기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답하다.

- 위원장이 2021학년도 등록금을 상정된 책정(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위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학부 입학금 2017학년도 입학금 기준 16% 금액 인하, 수업료 동결
- 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
- 경영전문대학원 신설과정 등록금 책정
- 학부 계절학기 및 학점등록금 동결
- 대학원 계절학기 및 교과목 등록금, 연구등록금, 논문등록금 동결

- 외부위원은 등록금 책정(안) 의결 후 퇴장하다.

4. 예산 관련 학부 학생위원 요구안에 대한 논의

- 위원장이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학생 요구안 3번부터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3번 '코로나 장기적인 상황대책 마련' 요구와 관련하여 학생위원의 설명을 요청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외부인의 수업공간 침해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상황인 지금은 외부인과의 접촉이 더 위험한 상황이므로 경비인력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

- 총무처장이 경비인력 확충 시 고정비용의 증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본교는 타대학에 비해 학생 수 및 면적 대비 경비인력이 많은 편이라고 답하다.

- 학생위원이 정문 및 건물 내부로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보안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

- 총무처장이 건물출입은 이미 카드리더기를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출입카드가 없는 외부인은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또한 앞서 코로나 발생 초기 정문 출입 통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를 위한 경비인력 투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차량통제와 관련하여 민원이 상당하였음을 설명하며, 정문 출입을 완전 통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다.

- 관리처장이 방역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총무처, 기숙사, 국제처 등 관련 부서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발열체크 장소는 ECC, 학관, 포스코관 등 본부에서 운영하는 장소와 단과대학별로 수업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소를 병행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학생위원의 의견을 요청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본부 운영 장소에서는 팔찌를 배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범대 및 경영대의 발열체크 장소에서는 팔찌를 배부하지 않는다고 말하다.

- 관리처장이 팔찌를 포함한 방역 물품 구입 비용은 본부 자체 예산 외에도 각 대학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하다.

- 총무처장이 셔틀버스 운행 현황을 설명하며 총 4대 중 경북궁 노선은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움을 설명하며 경북궁 노선을 교내노

	선으로 대체하여 배차간격을 줄이는 등 셔틀버스 운영을 개선하는 안을 고려 중임을 덧붙인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급행노선 배차 간격을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총무처장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다. - 학생위원이 경복궁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학생 의견수렴 계획이 없는지 문의하다. - 총무처장이 여러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안전상의 이유로 경복궁 노선은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재차 설명하다. - 학생위원이 경복궁 노선을 내부로 돌린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경로는 무엇인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경복궁 노선을 폐지하게 되면 기존 교내 노선의 배차간격 단축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학생위원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질의하다. - 시범대학 공동대표가 시범대는 기존 셔틀버스 노선에서 소외되어 있어 셔틀버스 노선 변경 계획이 있다면 학생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답하다. - 총무처장이 의견 수렴은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다. - 학생위원이 관광객 쿼터제 실현이 힘들다는 것에 대해 추가 설명 요청하다. - 총무처장이 관광객 쿼터제를 본교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실현할 적절한 방안 모색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답하다. - 위원장이 학생 자치 지원금 확대와 관련하여 학생처장에게 답변을 요청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 자치 지원금과 관련하여 단과대학 학생회 활동 지원 부분은 학과마다 상황과 특성이 다르므로 단과대학장 및 행정실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다. 학생처 차원에서 지원하는 총학생회 활동의 경우 대동제 행사 지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자치활동 지원금 규모를 소폭 확대하였음을 설명하다. 다만 학생자치 활동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학생회비로 자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학교의 지원금은 학생 자치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부 지원하는 개념임을 부연하다.
--	--

	- 위원장이 법정부담금 확대 요구와 관련하여 예산팀장에게 답변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본교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을 학교로 전입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법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법정부담금은 이미 100% 이상 부담해오고 있음을 설명하다. 법인 차원에서도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덧붙이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법인의 입장을 학생 측이 직접 들어볼 수 있는지 작년에도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해당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사립학교 수익사업은 일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교는 현재 주로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토지는 수익성이 가장 낮으므로 국가에서도 권고하지 않는 형태인데 다른 형태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덧붙이다. - 예산팀장이 법인이 수익은 인대사업 수익, 토지 사용료 수익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면 함께 전달하겠다고 답하다. - 학생위원이 수익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법인의 답변이 2~3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법인의 법정부담금 확대를 위해 학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다. - 예산팀장이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장학금 확대 요구와 관련하여 학생처장에게 답변을 요청하다. - 학생처장이 1차 회의의 질의응답 내용을 언급하며 장학금 규모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학교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음을 재차 설명하다. 학생위원의 성적장학금 확대 요구와 관련하여 서강대와 고대의 사례를 들며 국내 주요 대학들은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가계곤란 장학금을 확대하는 추세임을 설명하다. 덧붙여 본교는 현재 소득분위 6분위까지는 거의 100%(5분위까지 100%, 6분위 90%)에 가까운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타대학에 비해 성적장학금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하다. - 학생위원이 가계 곤란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어야 하지만 소득분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채길 수 있는지 질의하다.
--	---

	- 학생처장이 소득분위 기준은 충족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이화플러스 장학금 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선도적인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학생위원이 장학금 긴급 지원방식이 아니라 평소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다. - 학생처장이 일상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은 소득분위에 맞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답하며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에 대해 다시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학교에서는 소득분위 등에 제한이 없는 교외장학금을 적극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장학금 신청이 저조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추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생 장학금 중에 타고 출신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했다고 하였는데, 금액은 동일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인지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모두 확대한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해당 예산은 다소 증액된 상황이라고 답하다. - 위원장이 고시반 지원 요구와 관련하여 기획처장에게 답변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고시반 지원 확대 요구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기숙사의 사례를 들며, 비고시반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및 이해관계 충돌 등의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다. 아울러 고시반 예산을 특별 예산 방식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다. 학교에서도 고시반 지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고시반 지도교수, 인재개발원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고시반 실별로 좌석 대비 이용자의 비율을 점검한 결과 현재 공간이 부족한 고시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덧붙이다. -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가 고시반은 강의 관련 지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강의 관련 지원은 고시실에서 요청하면 인재개발원에서
--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답하다.

- 예산팀장이 강의 지원, 도서 지원, 생활 관련 지원 등 고시 종류마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다르므로 동일한 지원방식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 것임을 설명하다.

- 학생위원이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받아볼 수는 없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위원이 서면 요청 시 가능한 부분은 답변하겠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마지막 요구안인 실험실습비 및 차등 등록금과 관련하여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요구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은 1988년 교육부가 제시한 계열별 등록금 책정 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본교 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계열별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등록금 수입보다 교육비 지출 규모가 더 큰 대학 등록금 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학 등록금을 원가 명세서처럼 항목별로 계산하는 것은 어려움을 설명하다. 강의당 학생 수, 수업방식 차이 등 여러 사항이 고려되어 계열별 등록금이 차등 책정되나 정확한 산출기준이 명시되기는 어렵다고 답하다. 다만, 대학별 실험실습비 내역에 대해서는 작년도 교무회의를 통해 단대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올해에도 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이번에 새로 추가한 세부 요구안에 대하여 언급하며 수학과, 통계학과, 수학교육과의 경우 실험 실습이 주가 되는 학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과계열 타학과와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실험실습비가 차등등록금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뜻하고, 적어도 위 세 학과에 대한 납득할 만한 차등등록금 근거는 필요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은 교육의 내용뿐 아니라 교원 수 등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본교 수업환경 질이 낮나는 학교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신산업융합대학 의류산업학과와 체육과학부의 예시를 들며 학생들이 처한 열악한 수업환경에 관해 설명하다.

- 학생위원이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의 경우 운동장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시설을 빌려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체육과학부는 종전에도 별도의 수영장 및 체육관이 있어 타대학에 비해 실습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수영장이 폐쇄된 지금은 비용을 지원하여 외부 수영장에서 실습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학과마다 수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다양하므로 학과 간 상황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을 덧붙이다.

- 학생위원이 사범대학 교육공학과인 경우 인문계열로 구분되어 있지만 등록금은 일반 인문계열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가 Adobe 등 기자재 지원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다. 반대로 수학교육과나 통계학과 등의 등록금도 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통계학과인 컴퓨터 실습실 지원 등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이나 강의 내용, 학생 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학과 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음을 설명하다.

- 학생위원이 재정 문제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항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2023년부터 병원에서는 전입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원 가능해지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병원 전입금은 학교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지만, 사용 목적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추후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코로나 관련 세부 요구안 중 답변을 못 들은 환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건물 전체 환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건물은 물론이고 과방이나 열람실 등도 환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다. 과방과 열람실 환기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이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다.

- 관리처장이 건물마다 환기방식이 달라 상황을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답하다.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의견을 주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의견 중 공식적인 환기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다.

	- 학생위원이 열람실과 과방 환기를 중심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다. ■ 폐회 - 위원장이 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학생 요구안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1년 1월 12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강동범	강동범	위 원	이상은	이상은
	위 원	김영석	김영석	위 원	이수린	이수린
	위 원	노아정	노아정	위 원	이희주	이희주
	위 원	박수정	박수정	위 원	정도연	정도연
	위 원	배소현	배소현	위 원	조은진	조은진
	위 원	백옥경	백옥경	위 원	홍기석	홍기석
작 성 자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진 희 주 (인)					